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31
----------	------

발의연월일 : 2020. 8. 10.

발 의 자 : 장혜영 · 심상정 · 배진교
강은미 · 류호정 · 이은주
권인숙 · 김예지 · 남인순
이종성 · 장경태 · 조정훈
지성호 · 최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안 제149조).

나.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
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2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치적”을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정치적”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방청의 편의제공) 국회는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점자안내서 및 자막 등 물적 지원
2. 한국수어통역 및 안내보조 등 인적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 ----- ----- ----- ----- ----- ----- <u>. 이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정치적----- -----.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2(방청의 편의제공) 국회는 장애인 방청을 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점자안내서 및 자막 등 물적

	<u>지원</u> <u>2. 한국수어통역 및 안내보조</u> <u>등 인적 지원</u>
--	--